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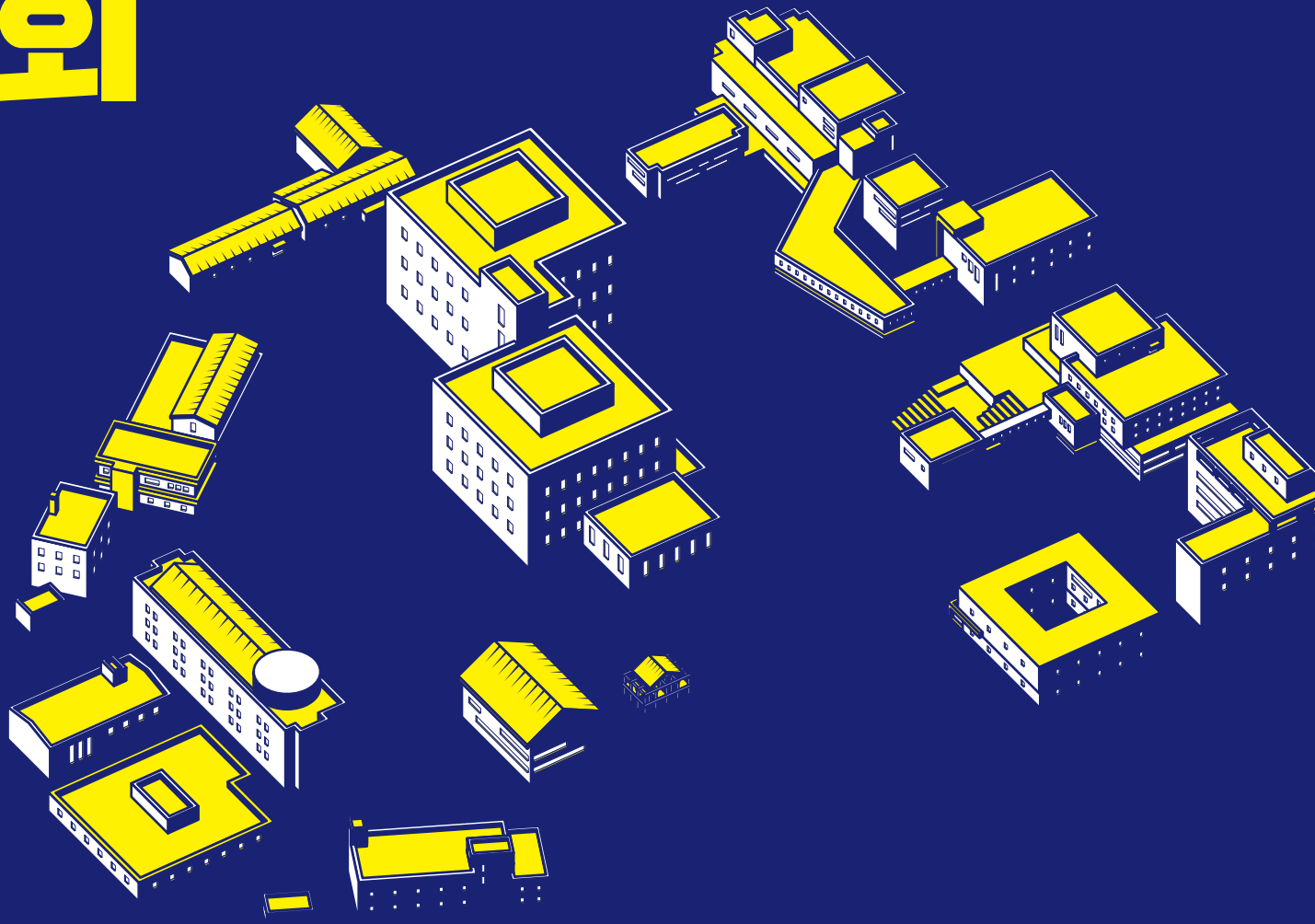
서울혁신파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서울혁신파크,
혁신의 미래를
설계하다

자료집

일시 2017. 5.23(화) 14:00~16:30

장소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서울혁신파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혁신파크, 혁신의 미래를 설계하다

일시 2017. 5.23(화) 14:00~16:30

장소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진행순서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14:00~14:05	5'	토론회 안내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축사	14:05~14:10	5'	토론회 통한 혁신파크 발전방안 마련 기원	이순자 시의원
주제발표	14:10~14:30	20'	주제 1 : 사회혁신클러스터의 시대적 의미	발표자
	14:30~14:50	20'	주제 2 : 서울혁신파크 운영 개선방안	발표자
휴식	14:50~15:00	10'	커피 브레이크	
토론	15:00~15:50	50'	토론자별 발표(5~6')	사회자
질의응답	15:50~16:20	30'	주제 및 토론내용 등에 대한 질의 및 의견개선	토론자 참석자
폐회	16:20~16:30	10'	행사 마무리	사회자

목 차

주제 1 : 사회혁신 클러스터의 시대적 의미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주제 2 : 서울혁신파크 운영 개선방안
(이강오 어린이대공원장)

서울혁신파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서울혁신파크, 혁신의 미래를 설계하다

주제 1

사회혁신 클러스터의 시대적 의미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사회역신 클러스터의 시대적 의미

201303



2017.05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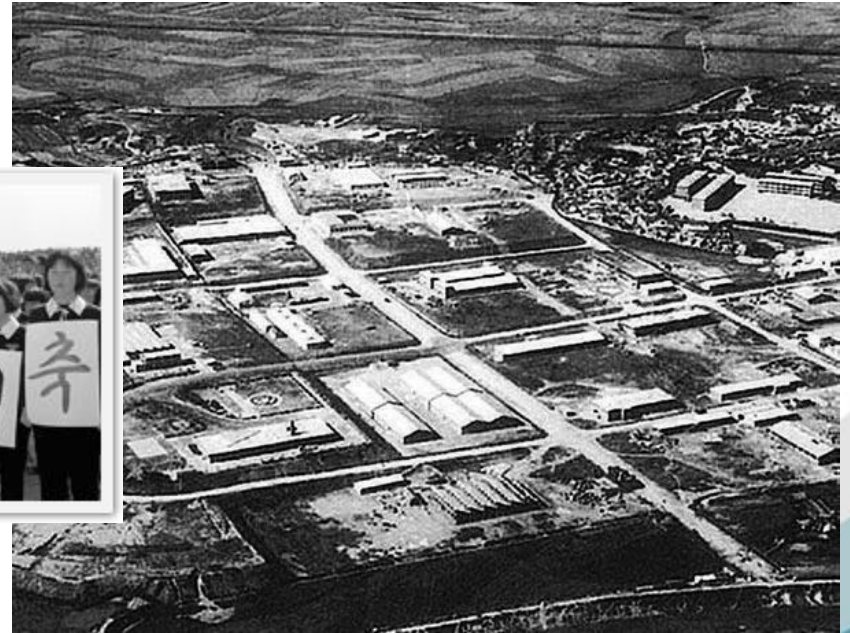
1. 집적단지의 역사
2.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3. 공공공간의 성격 변화
4.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집적단지의 역사

●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수출산업공단

- 1963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창립과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으로 구체화
- 서울부평을 중심으로 6개 단지가 건설되고 이어 경남권과 전국으로 확대, 산업화 시대를 상징



● 정보화 시대의 업그레이판 공업단지

- 전통산업의 집적지인 산업단지는 2000년 12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명
- 1997~2006년까지 10년 계획아래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재탄생
-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IT업계의 집결



- 창동 플랫폼 61 & 성수 Under Stand Avenue

- 새로운 유형의 복합 문화공간의 탄생과 실험



● 창조경제혁신센터

- 2014년 9월부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사업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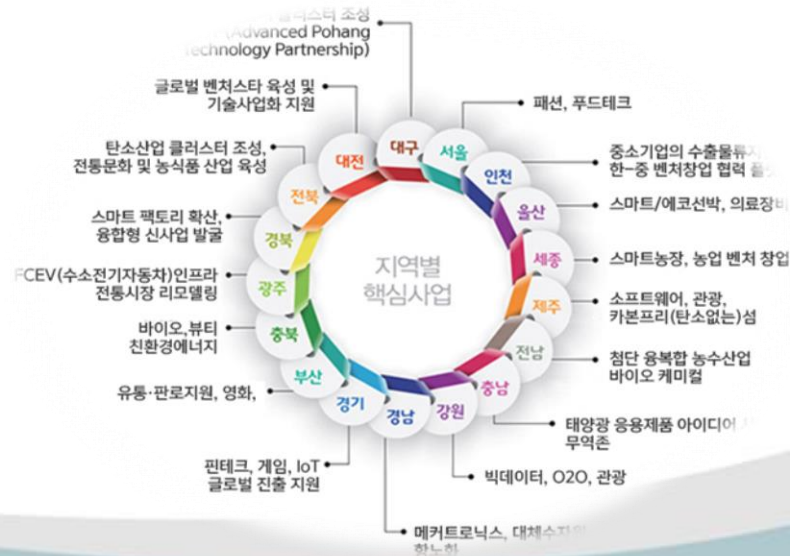
● 창조혁신경제센터

- 각각의 대기업이 한 지역을 담당하고 그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조경제혁신 생태계를 조성”

지역	주체 (할당 기업)	핵심사업(프로그램)
서울	CJ	패션, 푸드테크
인천	한진	중소기업의 수출물류지원, 한-중 벤처창업 협력 플랫폼
경기	KT	핀테크, 게임, IoT 글로벌 진출 지원
충북	LG	바이오, 뷰티, 친환경에너지
충남	한화	태양광 응용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무역존
세종	SK	스마트농장, 농업벤처 창업
대전	SK	글로벌 벤처스타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전북	효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통문화 및 농식품 산업 육성
제주	카카오	소프트웨어, 관광, 카본프리(탄소없는) 섬
광주	현대자동차	FCEV(수소전기자동차)인프라, 전통시장 리모델링
전남	GS	첨단 융복합 농수산업, 바이오 캐미칼
경남	두산	메커트로닉스, 대체수자원, 항노화
부산	롯데	유통, 판로지원, 영화
울산	현대중공업	스마트/에코선박, 의료장비
포항	포스코	
대구	삼성	첨단소재 에코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AP-TP (Advanced Pohang Technology Partnership)
경북	삼성	스마트 팩토리 확산, 융합형 신사업 발굴
강원	네이버	빅데이터, O2O, 관광

● 창조혁신경제센터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성

- 획일적 구성 → 기존의 복잡·다양한 도시와 지역 생태계를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만들며, 국가와 자본 중심적인 개발, 발전, 원조에 대한 도시와 지역 생태계의 의존을 심화
- 지역생태계 무시 →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역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역 생태계를 무시하거나, 지극히 복잡·다양한 지역 생태계 중 극히 일부로 지역 생태계 전체를 재단
- 사회적 역량 축소와 시민적 지식 배제 → 국가와 자본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지식 권력 독점



- 서울혁신파크는?

-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국가 프로젝트와 성격이 다른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필요
→ 핵심은 사회와 시민의 역량 강화
- 지역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협치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정체성
- 서울혁신파크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켰는가?



● 서울혁신파크의 벤치마크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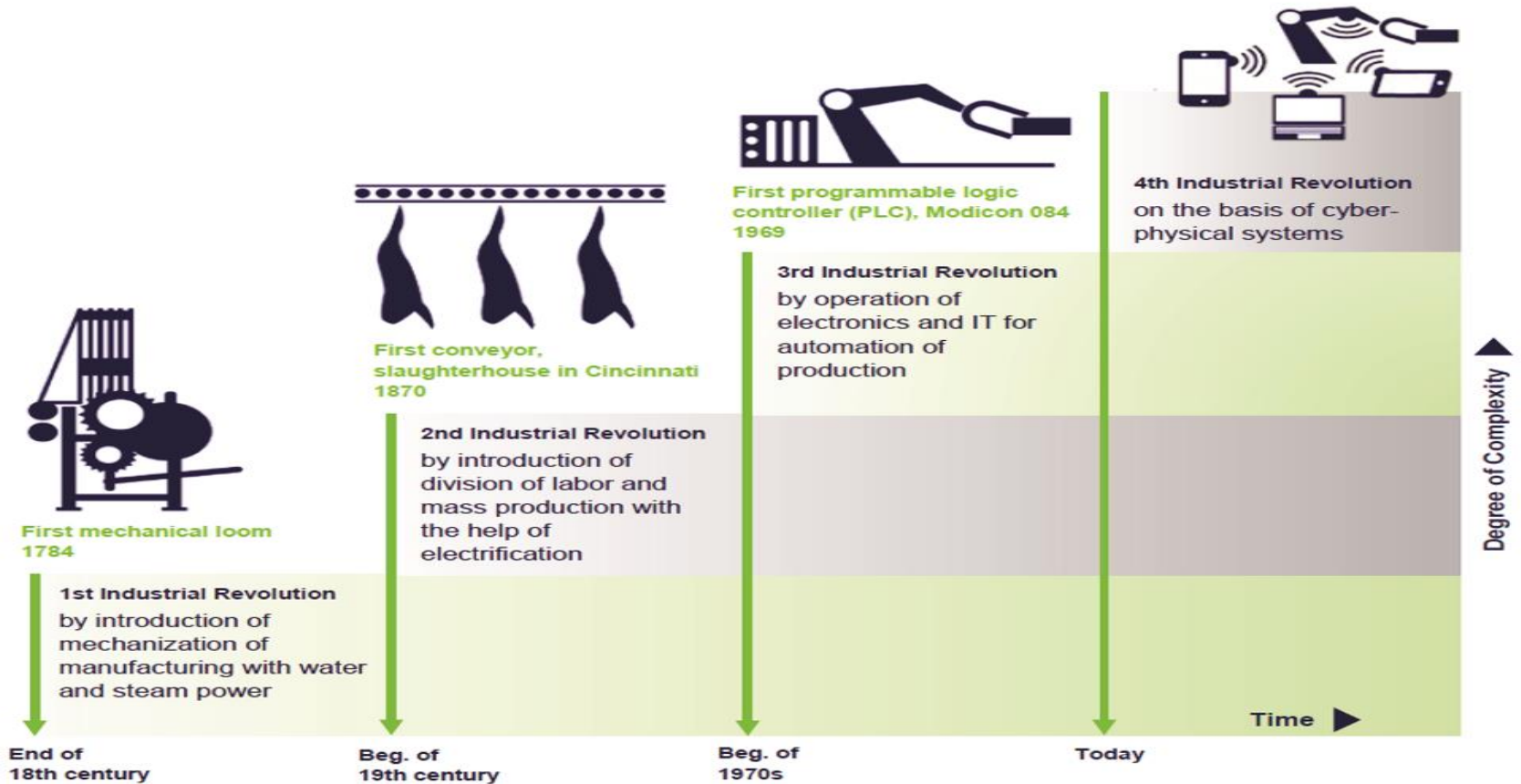
- 도민협력강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학습·토론을 상시할 수 있고 시·군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교류할 수 있으며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확산시켜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징 공간 필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혁명의 단계적 진화

- 200여 년 동안 네 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를 선도할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한국은 특히 집적단지를 통해 50여 년이라는 짧은기간 내에 기술추격에 성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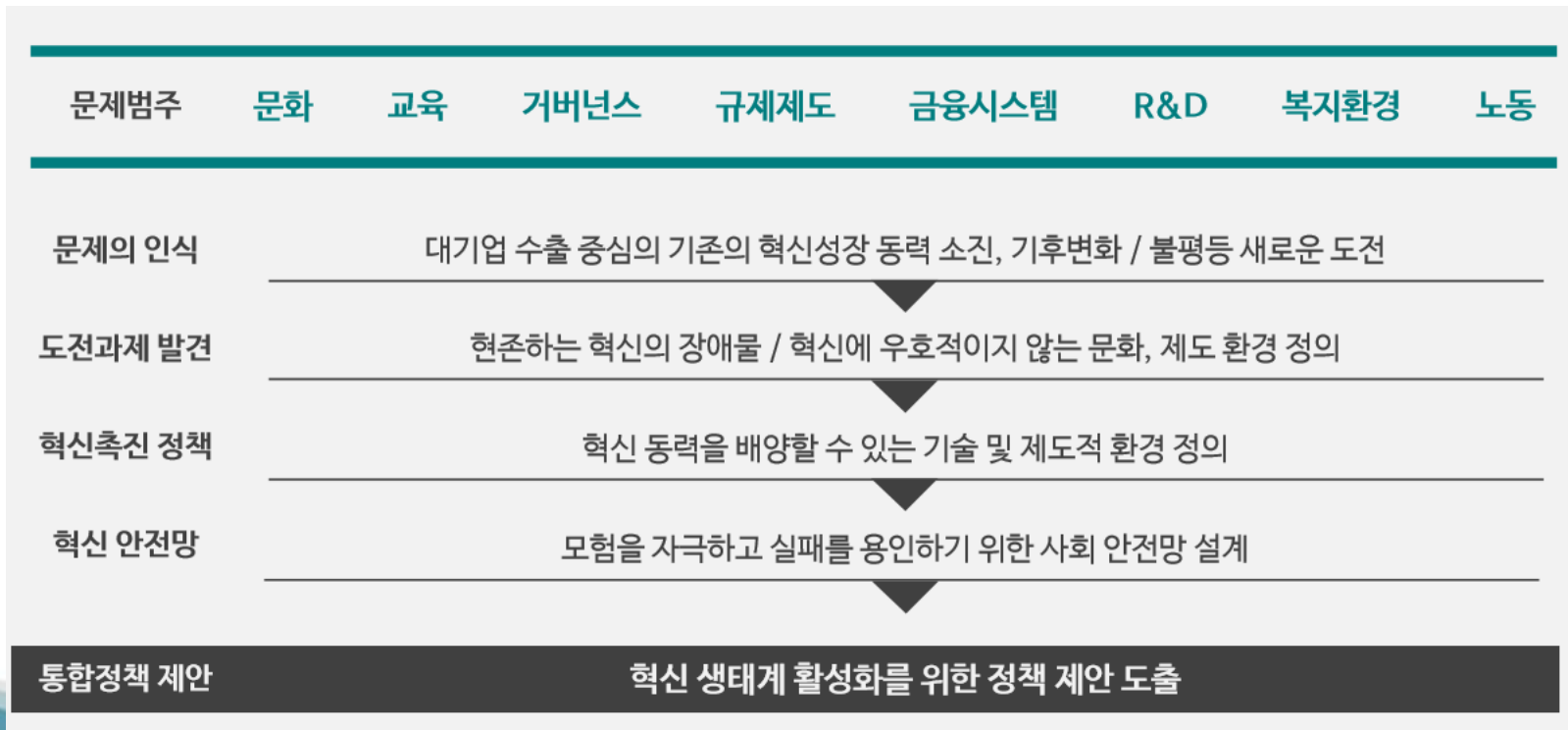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동반 추진 필요

- '첨단기술이 사회를 대체로 이롭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 또는 기술입국'의 환상을 깰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여 사회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기술적 혁신들이 사회적 단절(disconnection)이나 연결의 부품화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사회적 연결권(social right to connectivity)의 보장과 실현을 구현해주는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
- 연결될 공간의 필요성

기술혁명 시기	기술혁신과 조응하는 시민권의 진화
1차 산업혁명	17세기 이후 개인의 인신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민권(civil right)
2차 산업혁명	19세기 들어오면서 참정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20세기에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기초 생계수급 등의 사회권(social right) 모든 사람, 모든 사물, 그리고 사회와 자연에 연결되어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인 사회적 연결권(social right to conne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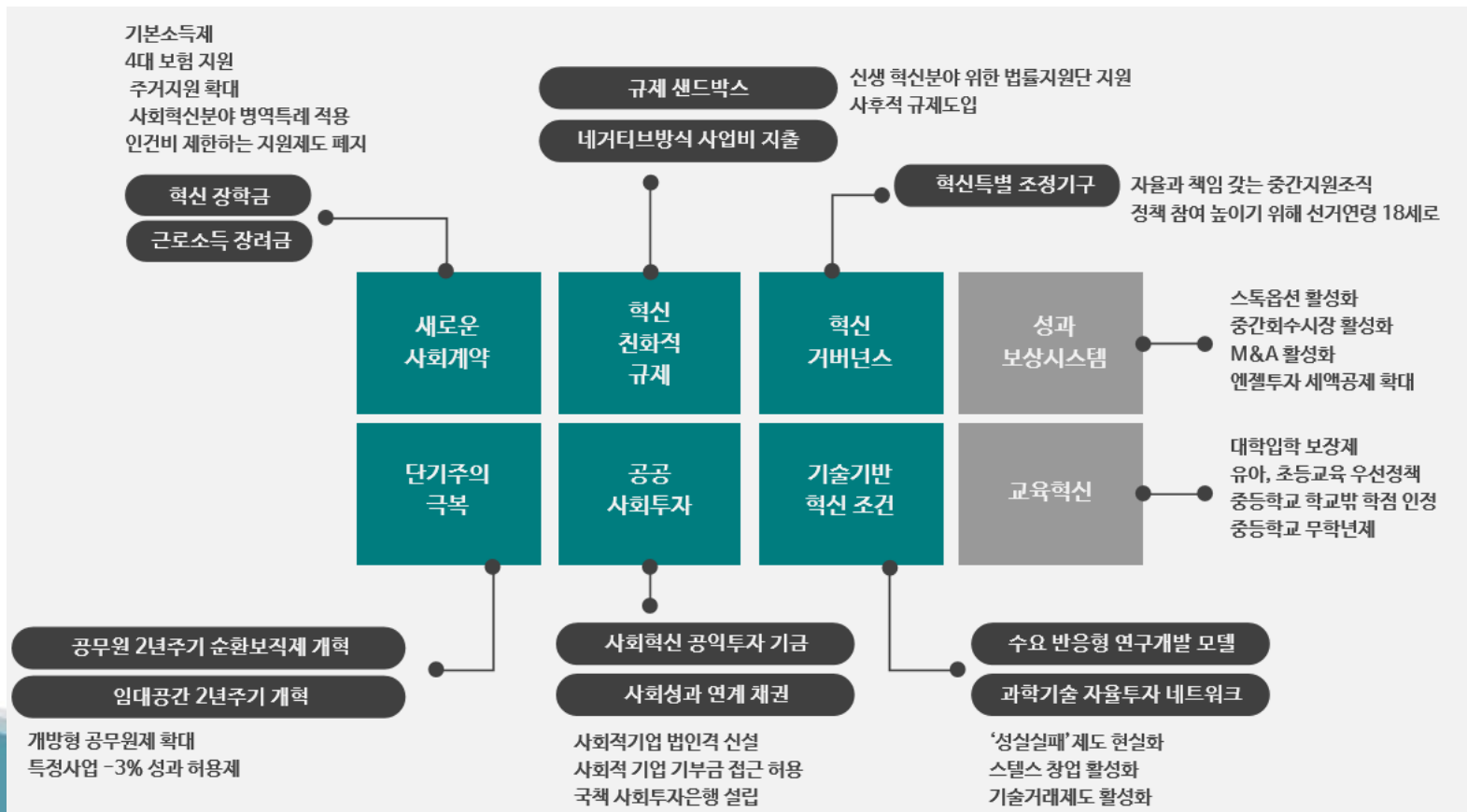
●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통합 정책의 필요성

- 한국사회의 혁신은 대기업 수출중심으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정하게 감수하면서도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술중심주의적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적 사회적 혁신 환경을 통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설계를 추구해야 함



●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통합 정책 사례

- 앞으로의 혁신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기술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환경조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개발될 전망 (아래는 '재단법인 여시재'와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공동프로젝트 결과)



●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통합 정책의 수용성

- 국정추진 담당자들은 여전히 기술혁신 편향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사회혁신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아래 표는 지난 4월 23일 혁신생태 조성을 위한 대선후보 초청 컨퍼런스 결과표임)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혁신 생태계 정책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 신산업 조기 활성화 위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동의	동의	동의	검토
2. 소셜벤처를 키우는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	동의	검토	동의	동의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	동의	동의	동의	검토
4. 혁신가를 지원하는 '혁신장학금' 신설, '근로소득지원금' 확대	검토	검토	검토	동의
5.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재벌 SI기업 계열분리'	검토	동의	동의	동의
6. 공정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기술보호 강화	동의	동의	동의	동의
7. 공유행정 : 민간 혁신활동을 위한 '공공 유휴 공간/시설' 개방	동의	동의	동의	동의
8. 신산업과 사회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혁신도시 2.0	동의	검토	검토	동의
9. '혁신정책조정기구' 설치 및 청와대 '혁신비서관' 신설	검토	검토	동의	동의
10.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와 과학의회 설립	동의	동의	검토	동의
11. 과학교육의 혁신: 인문학 연계, 교양, 활동중심 과학교육 / 신 과학기술 직업군 육성	검토	동의	동의	동의

공공공간의 성격변화

● 4차 산업혁명과 공공 공간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은 베드타운 공간, 생산하는 공간, 소비하는 공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음. 그 과정에서 '공간을 잃은'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배회
이제 공적 공간은 시민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활동을 매개하는 '연결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공원과 도서관, 전시관, 휴게 공간 등 수많은 공적 공간들은 고정된 틀을 벗고 시민들이 연결을 매개하는 물리적 플랫폼으로서, 연결의 광장으로서 재설계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과 공공 공간의 변화

“사회의 성격이 변하고 생활방식이 달라지면 필요한 도시공간, 공공공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전개 양상과 겹쳐 보면 이는 각별한 사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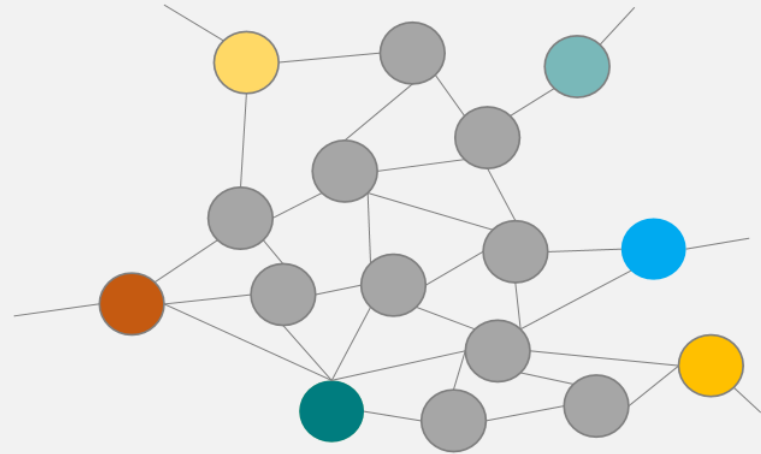
사회의 많은 재화·서비스가 무형의 공유자산화 되어가고 주거의 외부화, 주거의 도시(전체)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공공간은 성격을 달리해야 하고 새로운 공공공간의 창출도 필요할 것이다.” (홍기빈, 2016)

● 코워킹 공간의 확산

- 코워킹 스페이스는 일하는 공유 공간으로서 2011년 전 세계에서 1,130개(43,000명 이용)였던 코워킹 스페이스는 2016년 현재 약 11,300개(835,000명)로 10배 넘게 증가하면서 일하고 활동하는 공간적 방식의 새로운 혁신의 전형이 되고 있음

코워킹의 핵심 정신

“우리는 코워킹 방식과 문화의 저변에 흐르는 정신과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잡아내고자 한다. 자율성, 개방성, 수평성, 다양성, 복합성, 협력, 수용성, 투명한 운영”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업무방식,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곳,
그리고 새로운 일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문화가 있는 곳이 코워킹 스페이스다.”

● 코워킹 공간 운영의 특성

- 일과 활동의 방식의 혁신 전망 → 코워킹 스페이스는 업무공간 이상의 그 무엇이다.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자아발견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
-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 방식 추구 → 중앙 통치에서 각 역의 주체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는 코워킹의 철학과 원리에 기반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코워킹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 설계 필요 →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결을 기초로 한 코워킹 작업방식에서도 소득과 생활의 불안을 해소해줄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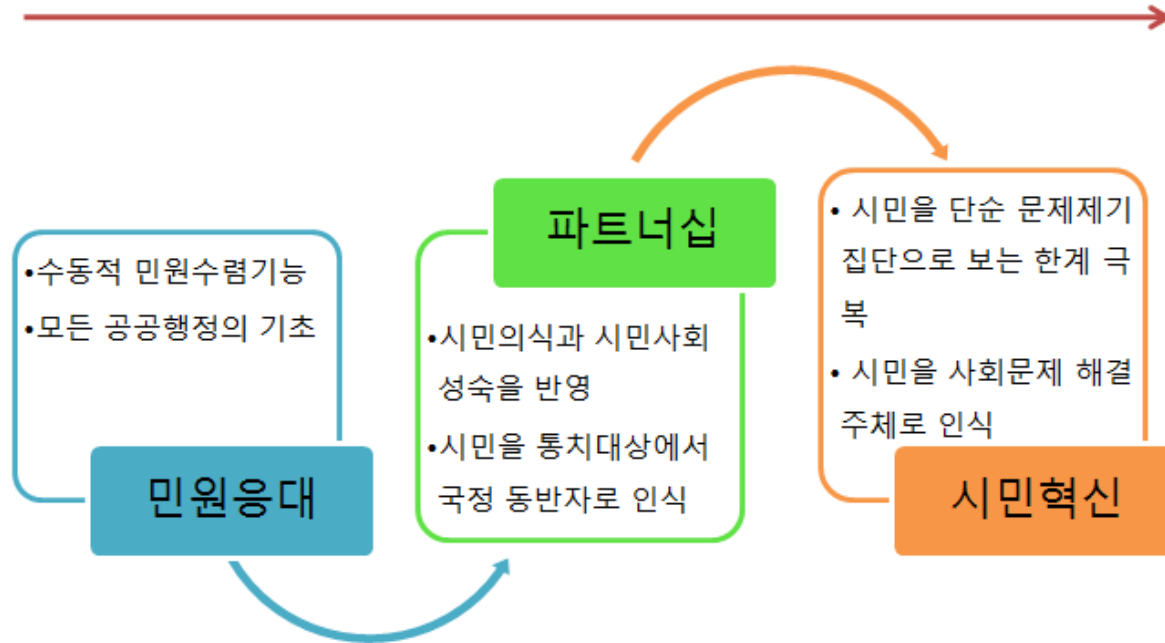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 사회혁신 수석실 신설의 함의

<p>노무현 정부</p>	<p>시민사회 수석 (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탄핵사태 이후 최초 신설 -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을 뜻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행하려고 만든 조직” ☞ 사회조정비서관 1,2,3 형식의 조직 ※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에 탄핵 촛불시위를 보며 <u>"저렇게 참여 의지가 강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세상은 이념 대립의 시대에서 거버넌스 경쟁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시민사회 수석실 신설 구상(윤태영 대변인 설명)</u>
<p>이명박 정부</p>	<p>사회통합 수석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시민사회수석이 폐지되고 일부 기능이 정무수석실(시민사회비서관, 민원관리 비서관)로 이관되었다가 2010년에 사회통합수석으로 부활함 ☞ 조직은 국민소통/ 시민사회/민원관리 비서관으로 편재
<p>박근혜 정부</p>	<p>국민소통비서관 민원 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통합 수석이 폐지되고 대신에, 정무 수석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 민정수석 산하에 민원비서관으로 편재

● 사회혁신 수석실 신설의 함의

- 기존의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혁신수석실로 전환된 것은 시민의 성장과 문제해결 능력을 돕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서울시 혁신정책과 중앙정부 혁신정책의 접목 가능성

-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 혁신정책을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과거 정부와는 다른 협력구조로 사회혁신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대통령 공약 정책 문의 쇄도" 서울시-중앙정부 관계 급반전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05.14 오전 7:15
최종수정 2017.05.14 오전 7:16



66



15



가 가

"文대통령 공약에 서울시 정책과제 60%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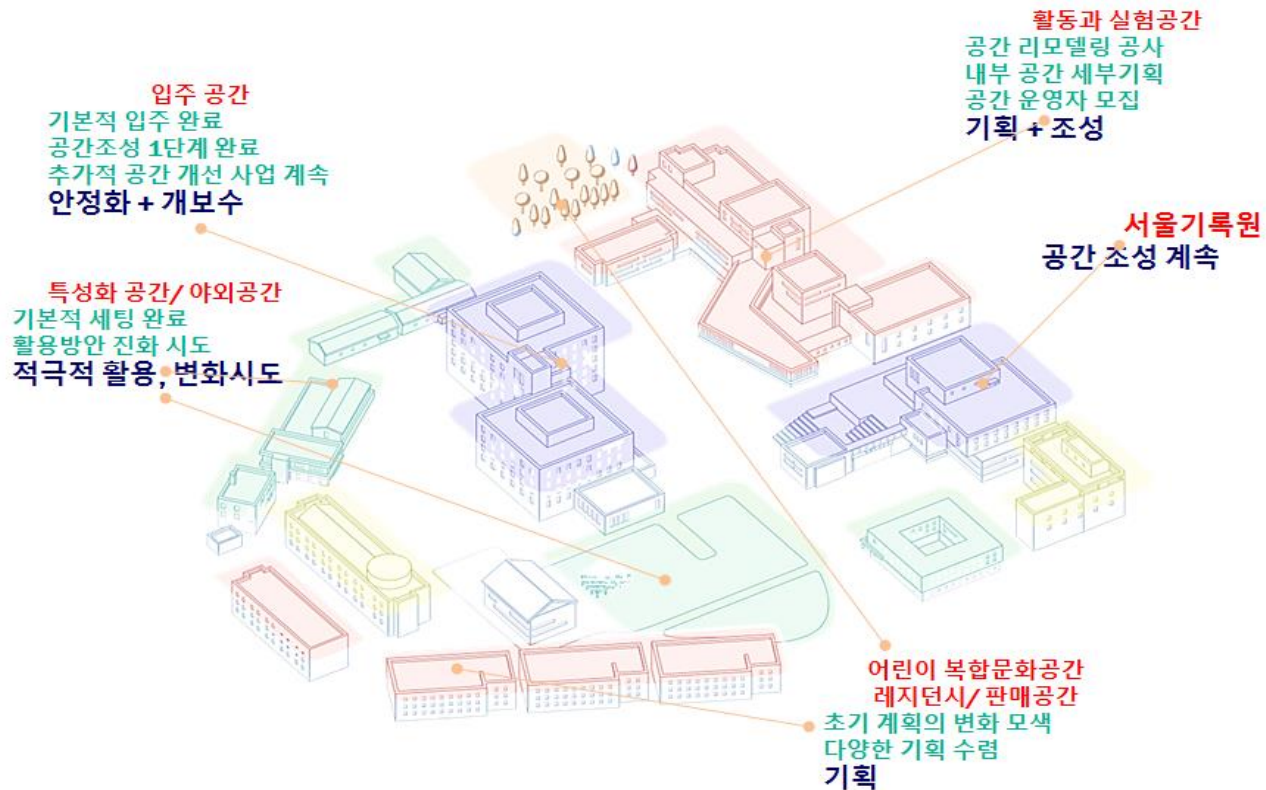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서울시 정책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가 업무보고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울시 정책에 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서울시가 건의한 정책과제 66건 중 약 60%인 39개가 반영됐다.

● 서울혁신파크의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

- 집적단지 모델의 역사적 진화의 결과이자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서울혁신파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혁신 부분을 뒷받침하는 모델기지로서의 서울혁신파크
- 공공공간 진화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서울혁신파크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동 실험공간으로서의 서울혁신파크



“혁신은 행운이나 깨달음, 또는 연금술 같은 것이 아니다. 탁월한 개인들의
배타적인 영역도 아니다. 혁신은 관리되고 지원되고 키워질 수 있다.
누구나 원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파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서울혁신파크, 혁신의 미래를 설계하다

주제 2

서울혁신파크 운영 개선방안 (이강오 어린이대공원장)



‘혁신파크’를 ‘혁신의 숲’으로



2017.05.23.

이강오 어대공 원장



서울혁신파크 운영개선 TF

서울혁신파크 운영개선 TF 경과

1. 추진배경

-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지?
- 입주자를 포함한 구성원 중심의 운영체계가 가능할지?
-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2. 추진과정

- 2월09일. TF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
- 2월20일. 1차 TF “논의 주제 설정”
- 2월28일. 2차 TF “그릇(공간)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 3월16일. 3차 TF “구성원들의 바램 그리고 단기 성공과제”
- 4월05일. 혁신센터 직원들과의 대화

Keywords

1. 첫번째 만남

- 혁신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인가? 혁신파크의 운영자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 입주자는 혁신가인가? 혁신가를 꿈꾸는 개척가인가?
- 혁신파크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 혁신센터는 **혁신파크를 운영하는 Manager!**여야 한다
- 사회혁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공유와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가로 등단하는 곳이다**
- 혁신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해방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이다

Keywords

2. 혁신파크의 성격에 대한 정리

- 혁신가를 꿈꾸는 개척자를 위한 **해방공간**(자유로운 시도가 가능)
-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간**
(혁신가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여가를 즐김)
- 현재는 해방공간에 주력해야 할 때임
- 열린공간은 적절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가능
- **혁신파크는 개척자의 입장에서 “범용적이고, 매력적이고, 열린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여야 한다”**
 - (1) **생활**하기 좋다. 일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린다(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 (2) **일**하기 좋다. 개척자들은 파크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 (3) **사업**하기 좋다.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 (4) **융합**하기 좋다. 일상적으로 수 많은 분야와의 교류와 협력이 일어난다
-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유무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혁신파크가 플랫폼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많은 개척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Keywords

2. 두번째 만남

- 선택과 집중이 필요

내리거나, 좁히거나



올리거나, 넓히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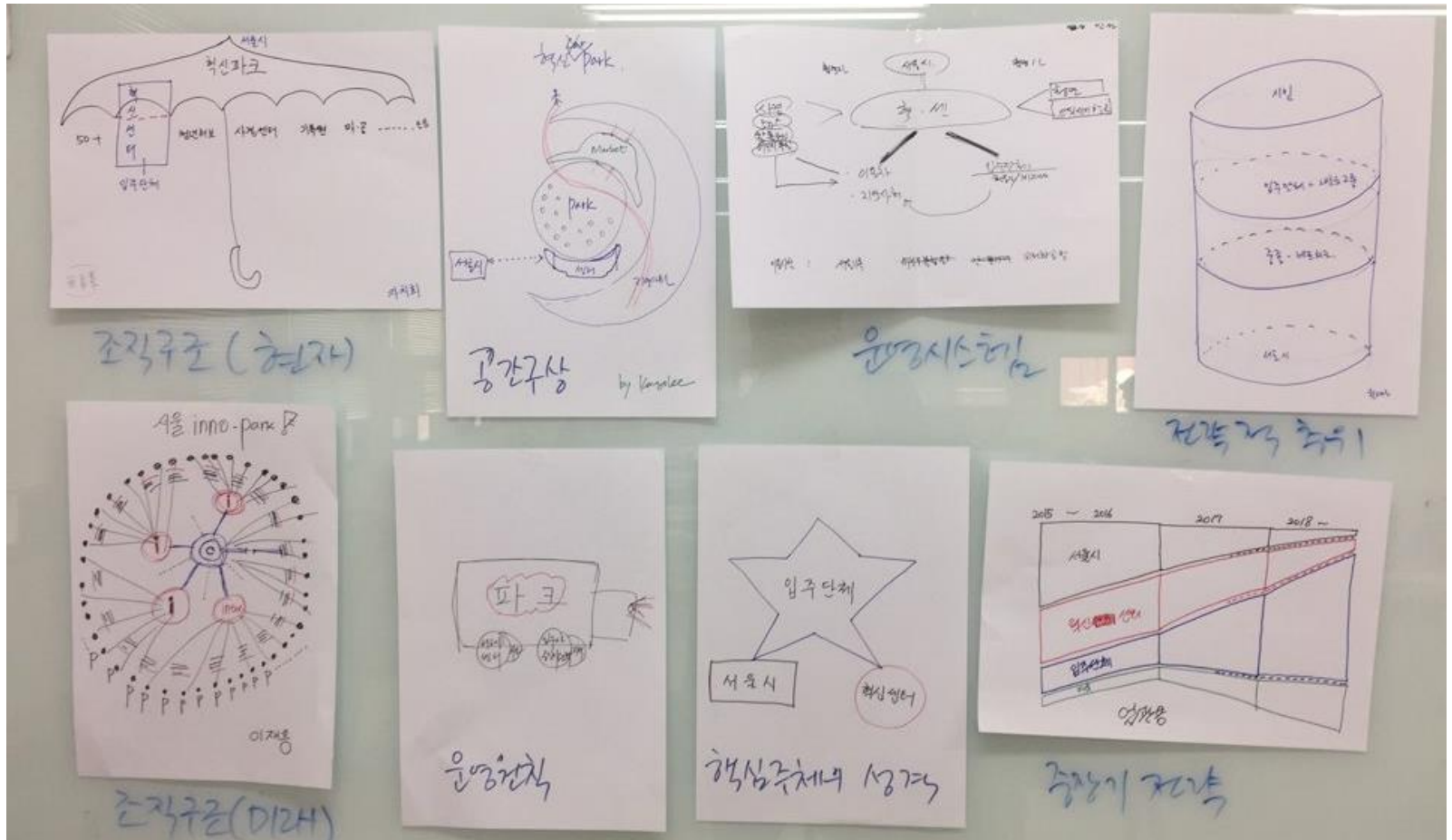


구분	개선방향	선택과 집중
시간	적용가능한 단기적 과제에 집중	▼
공간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
주체	Key Player발굴에 집중	▼
제도	파크의 독립성과 자율성 증진	△
주제	사회혁신론에서 구체적 실천	▼
자원	서울시 다양한 자원 + 중앙정부 + 민간자원	△
영역	은평을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	▼

Keywords

3. 세번째 만남

- 혁신파크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선





서울혁신파크 단기 성공과제 연구

혁신 파크의 특수성과 독자성에 기초한 사례 분석

● 독특한 자산

(유형)

- 국내 유일 3만 평 공간으로 다양한 실험 가능
: 입주사 건물과 내부 공유공간 외 문화예술, 팝업, 목공 공장, 공원 등 소재
- **혁신 기지와 파크 기능이 공존하는 유일의 공간**
- 인구 49만의 은평구와 종로 서대문구 등 90만 인구 배후지

(무형)

- 입주한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 협업 시 시너지 효과 기대
- 경험 풍부한 다양한 혁신가 그룹 입주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하자 센터 출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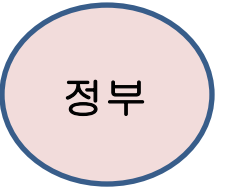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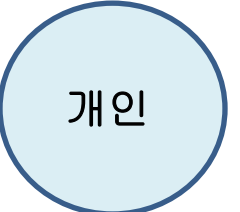
- **은평에 없는 것** : 대학교, 기업체, 특별한 스토리, 문화예술, 유명 시장
- **은평에 있는 것** : 북한산, 국책 연구 기관, 혁신파크, 산새마을 등 마을 공동체 운동 활발

●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긍정적 요소

- 초기의 내홍 감소
- 2017년 하반기 : 9동, 15동 개관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 2017년 운영/시설 관리 이원화로 효율성과 전문성 기대 가능
-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입주사 사례 증가
- 이념적인 가치 보다는 일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 확보

●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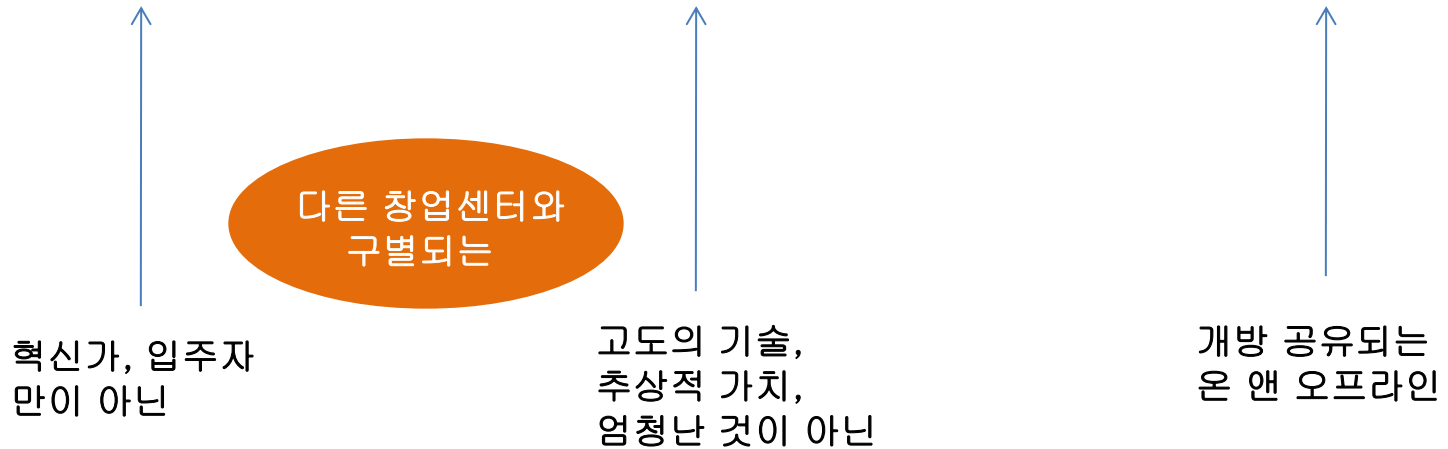
- ① 성수클러스터: 중심 투자자, **스토리텔링**(‘ 전통수제화의 거리’) 소재를 잘 활용. **의외의 장소** (사양화 공장 단지)를 선택.
- ② 상상마당: 온라인 상상마당으로 콘텐츠 축적. 차별화된 타겟과 컨셉트(풀뿌리 상상/ 예술) **자율권 부여**(소수 관리인원-대행사 체제), **예술로 지역 협력**.
- ③ 공부 공동체: 인문학에 집중, **스타 (외국 학자)활용**. 꾸준함
- ④ MCN의 길: **미친 열정**, 끈기, 협업 (강우현, 김흥수, 최옥영, 인재진, 서명숙 등)
- ⑤ 마켓 공동체: 색다른 컨셉트(강변, 골목 등)와 **문화 (이야기가 있는), 즐기는 놀이 강조**
- ⑥ 관광두레: **주민들 참여와 지역 유산에 포커싱**
- ⑦ 벤처단지: **적절하거나 파격적인 지원 체계, 예술 베이스**



가설. 수요 파악에 기초한 4대 기능과 혁신파크 컨셉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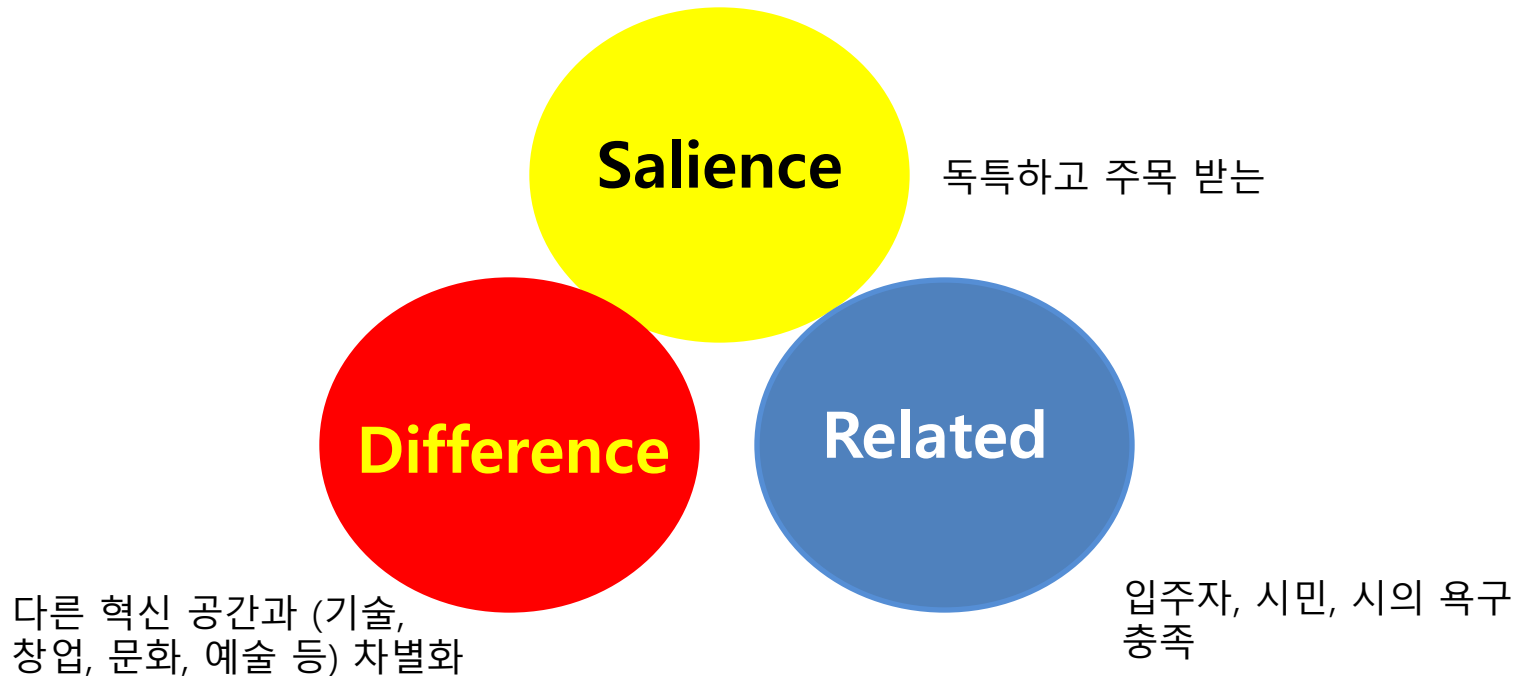
- 서울혁신파크(AS IS)

“시민이 공동의 구성자가 되어 함께 일상의 혁신을 일궈내는 사회혁신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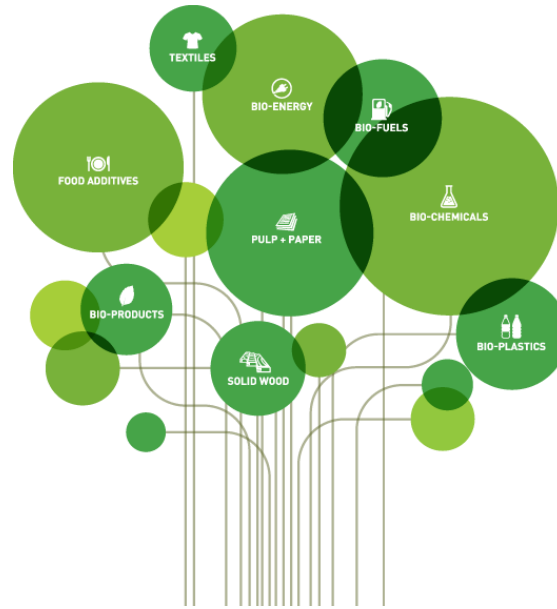
- 그런데, 어떤 일상의 혁신(TO BE) 플랫폼이 될 것인가?

‘혁신파크’ 컨셉트 3요소



- ① **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 공부 혁명, 메이커 운동, 공유와 협치, 공동체
- ② **문 제** : 혁신의 방법론과 아이템 미흡, парк 기능 부족
- ③ **의지와 수요** : "시민이 공동의 조성자가 되어 함께 일상의 혁신을 일궈내는 사회혁신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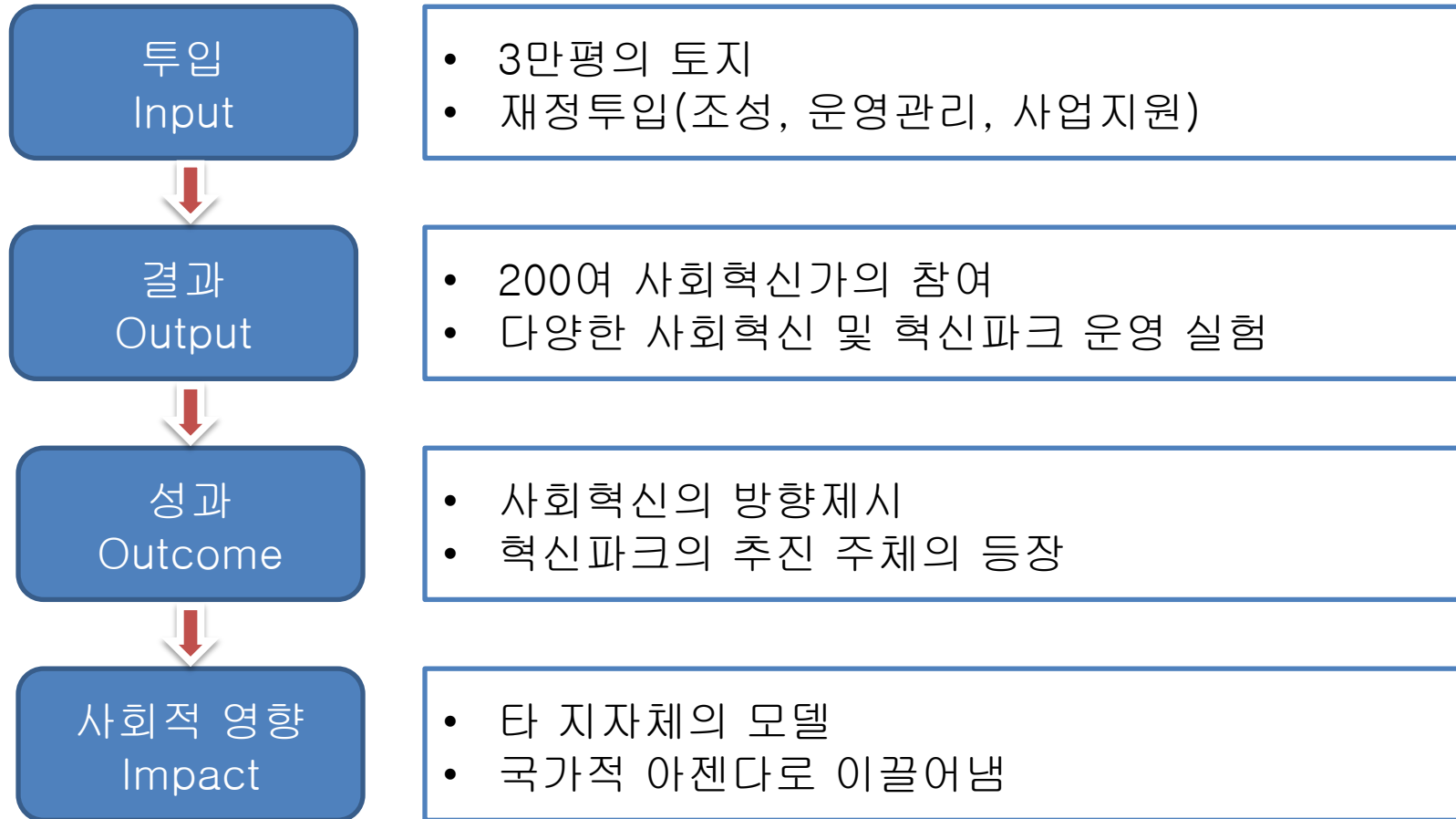




맺는 말 : 혁신의 숲으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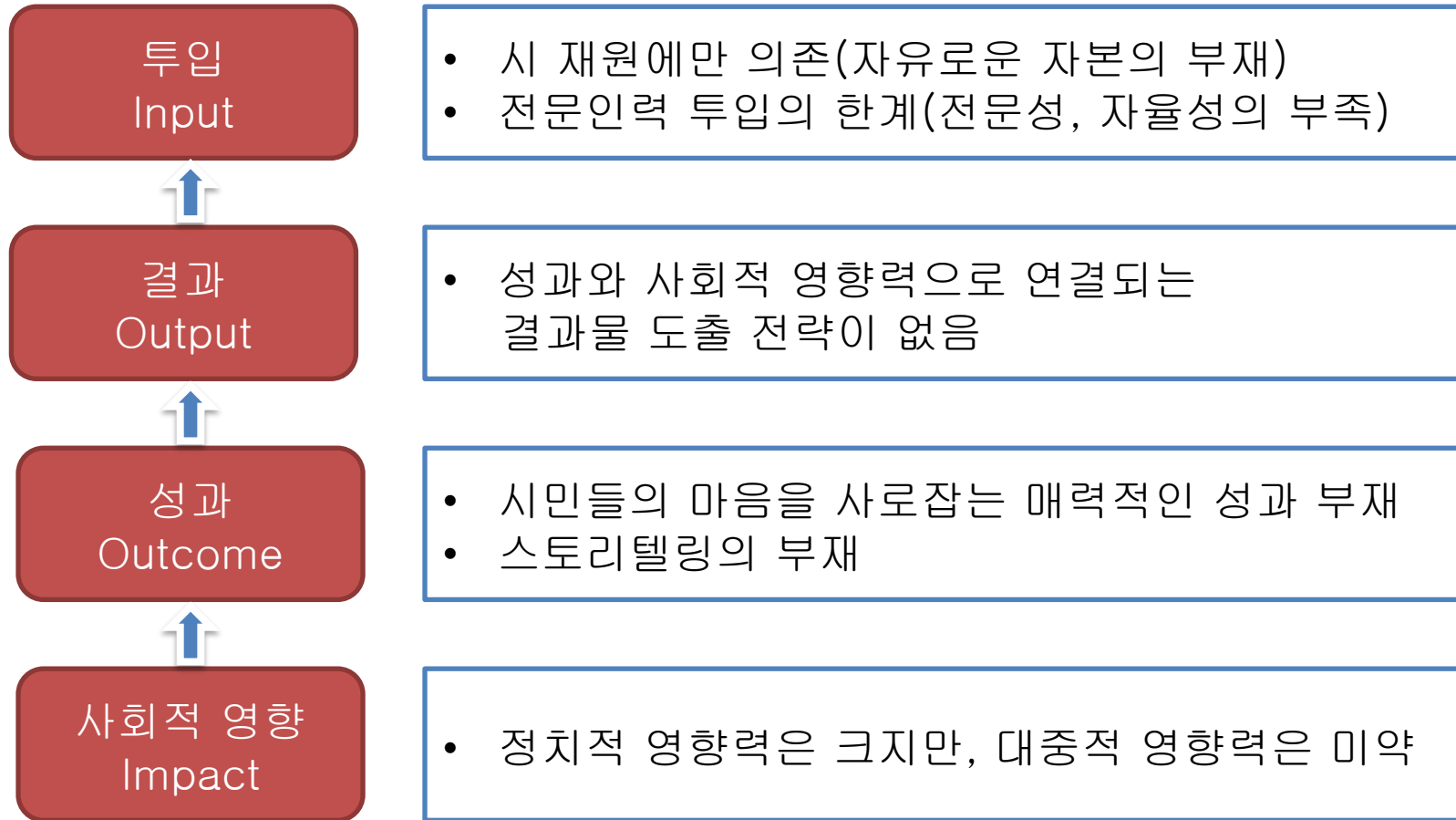
성과와 한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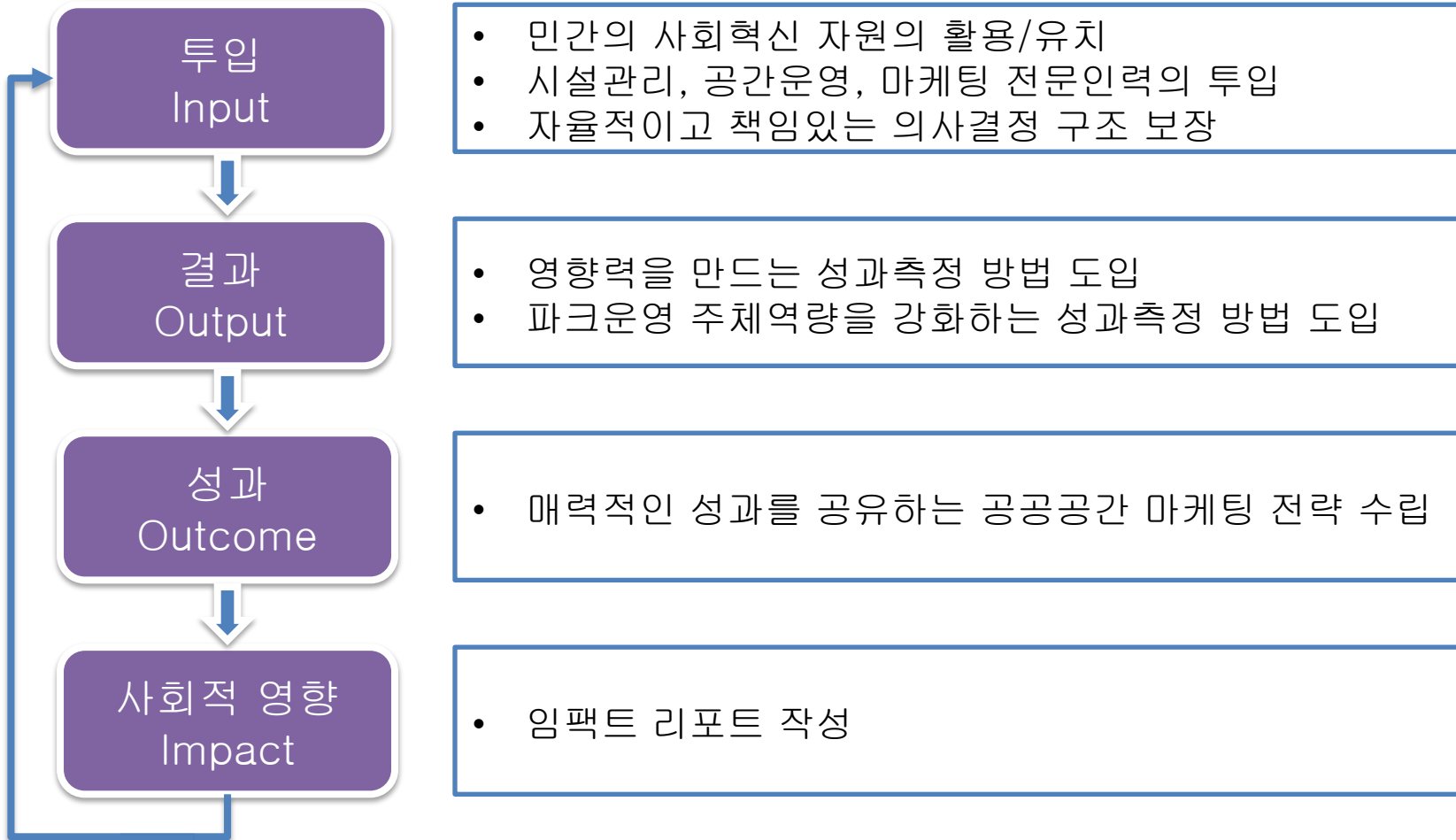
성과와 한계

[한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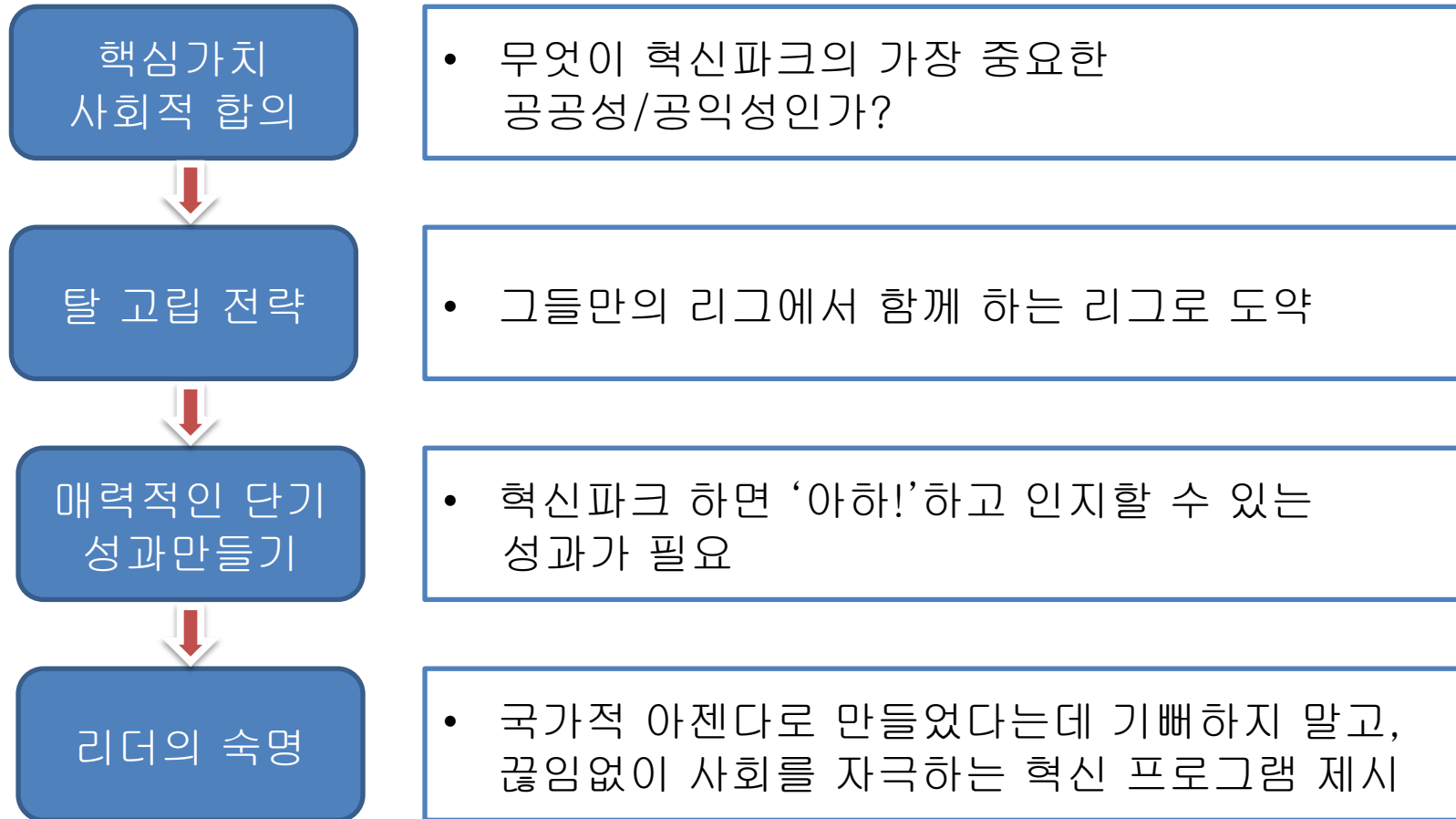
[한계를 극복]



프로세스 관리의 중요성 : 각각의 극복 과정이 따로 놓지 않도록 관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 but 동시다발적 추진과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 but 동시다발적 추진과제]

핵심가치
사회적 합의

- **지금!** 무엇이 혁신파크의 가장 중요한 공공성/공익성인가?

사회혁신 그룹의 성장

시민교육기회제공

사회혁신 의제발굴

구체적 혁신 성과

공유와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플랫폼구축

시민들의 자유로운 파크 이용

청년/사회혁신가들의 도전기회

지역사회 기여

사회혁신에 대한 대중적 인식

구성원들의 복지증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 but 동시다발적 추진과제]

탈 고립 전략

- 그들만의 리그에서 '모두의 프로젝트'로 도약



혁신파크는 지역사회에 사회혁신路를 만들자. 일상의 혁신가를 발굴한다!
서울시와 지역사회는 혁신파크의 성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지지자를 만들자
○○○의 사업과 성과에서 벗어나 '모두의 프로젝트'로 만들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 but 동시다발적 추진과제]

매력적인 단기
성과만들기

- 혁신파크 하면 ‘아하!’하고 인지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8+1 가지 제안)

1. 대규모(4천 평 이상)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확충 운영
 2. 시민 교육 및 학습 공간 : 수유 너머, 인디고 서원, 혁신의 북(Book) 숲
 3. 예술가(음악, 미술, 연극단) 5% 비율로 입주 - 콜라보/마켓/시민 공유
 4. 공유의 마켓 : 양평 리버 마켓과 마르쉐@+ **재즈 데이**
 5. 놀이와 체험, 예술이 있는 메이커 파크 & Shop : MCN, 상상마당
 6. 전략적 입주사 지원 시스템 : cf) 위워크
 7. 주변 지역 핵심 플레이스 구축 및 주민 참여 관광두레 길 운영
: 혁신 파크와 인근 시장과 맛 집 대상- ‘은평 혁신 타운/로(Road)’로 연결
 8. 혁신파크만의 문화 만들기
- + 1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 but 동시다발적 추진과제]

리더의 속명

-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었다는데 기뻐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회를 자극하는 혁신 프로그램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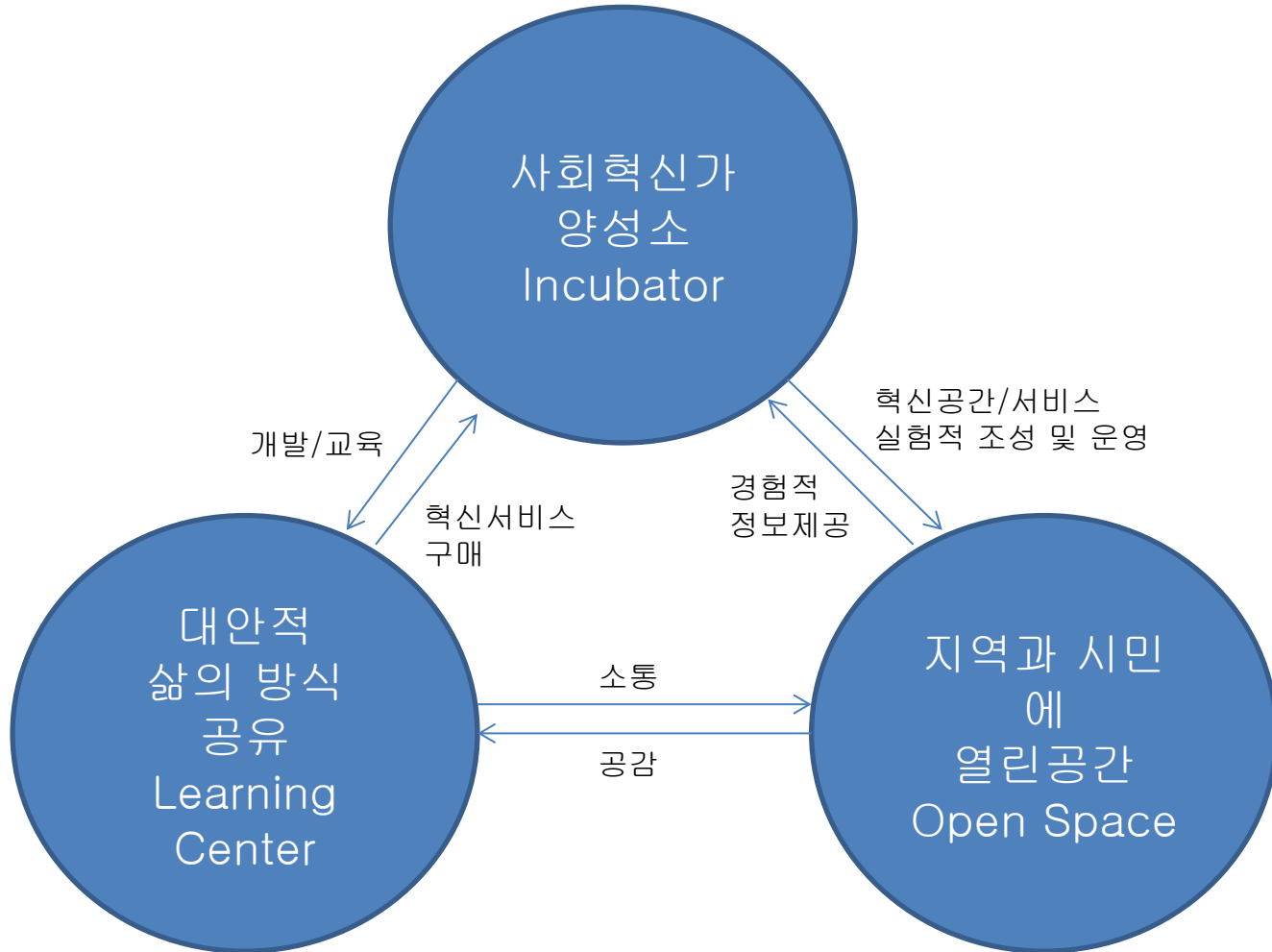
**EQUALITY
REBOOTED**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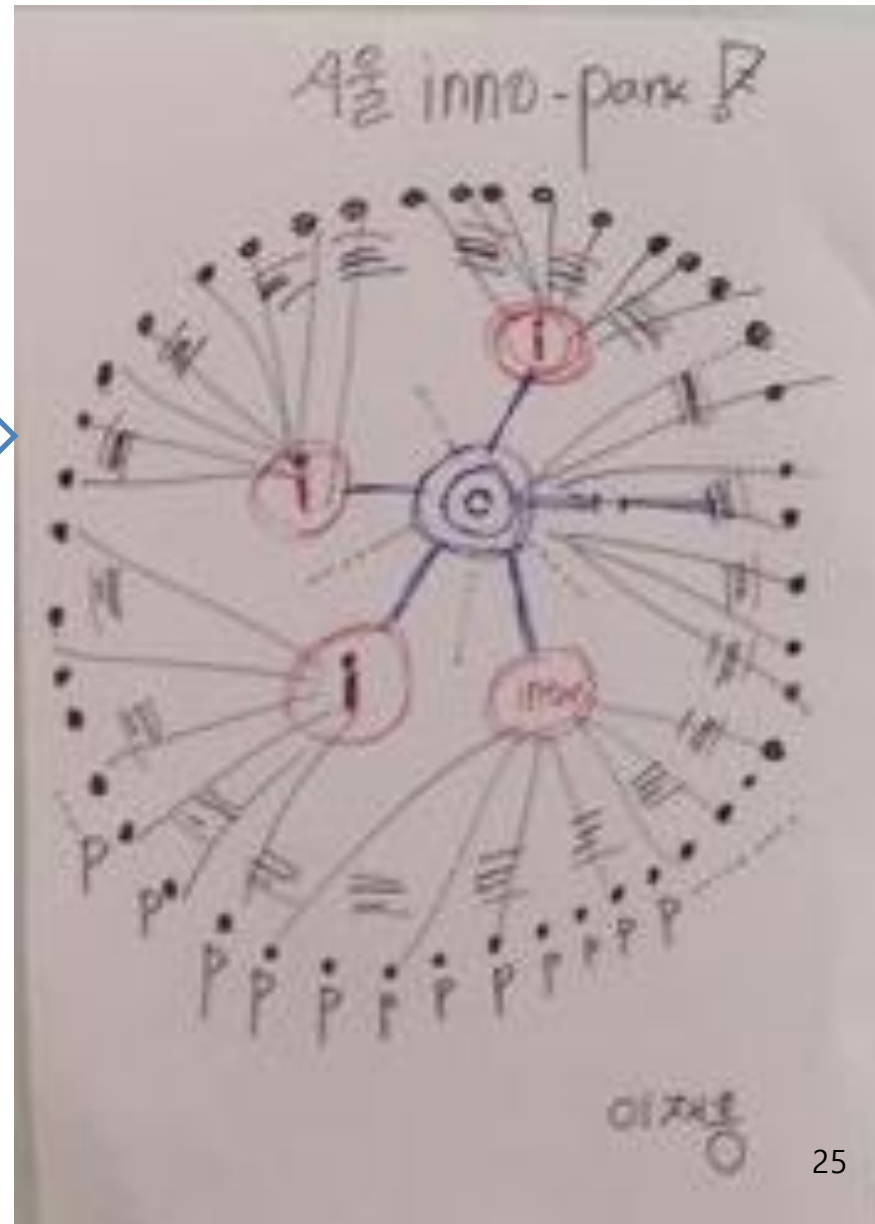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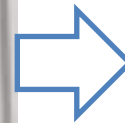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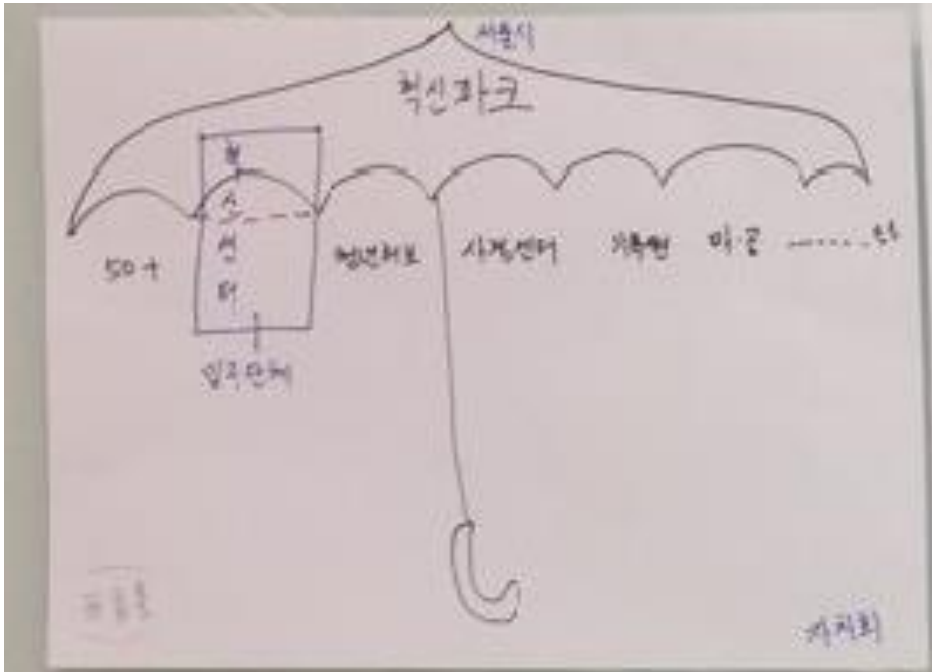


서울혁신가상 제정
Seoul Social Innovation Award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_ 서울혁신파크의 3가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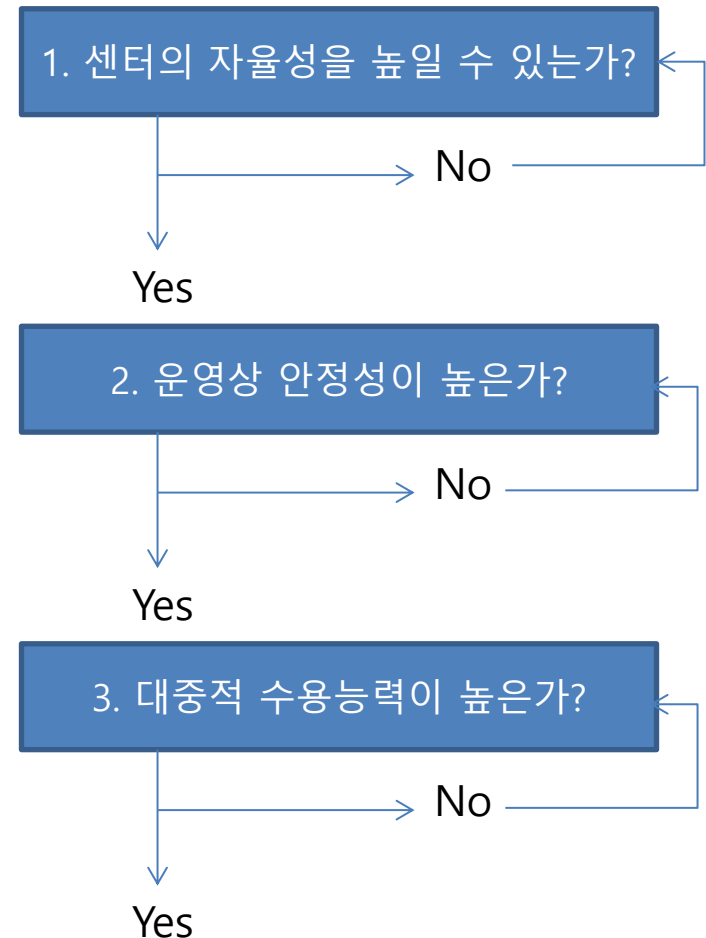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_서울혁신파크 조직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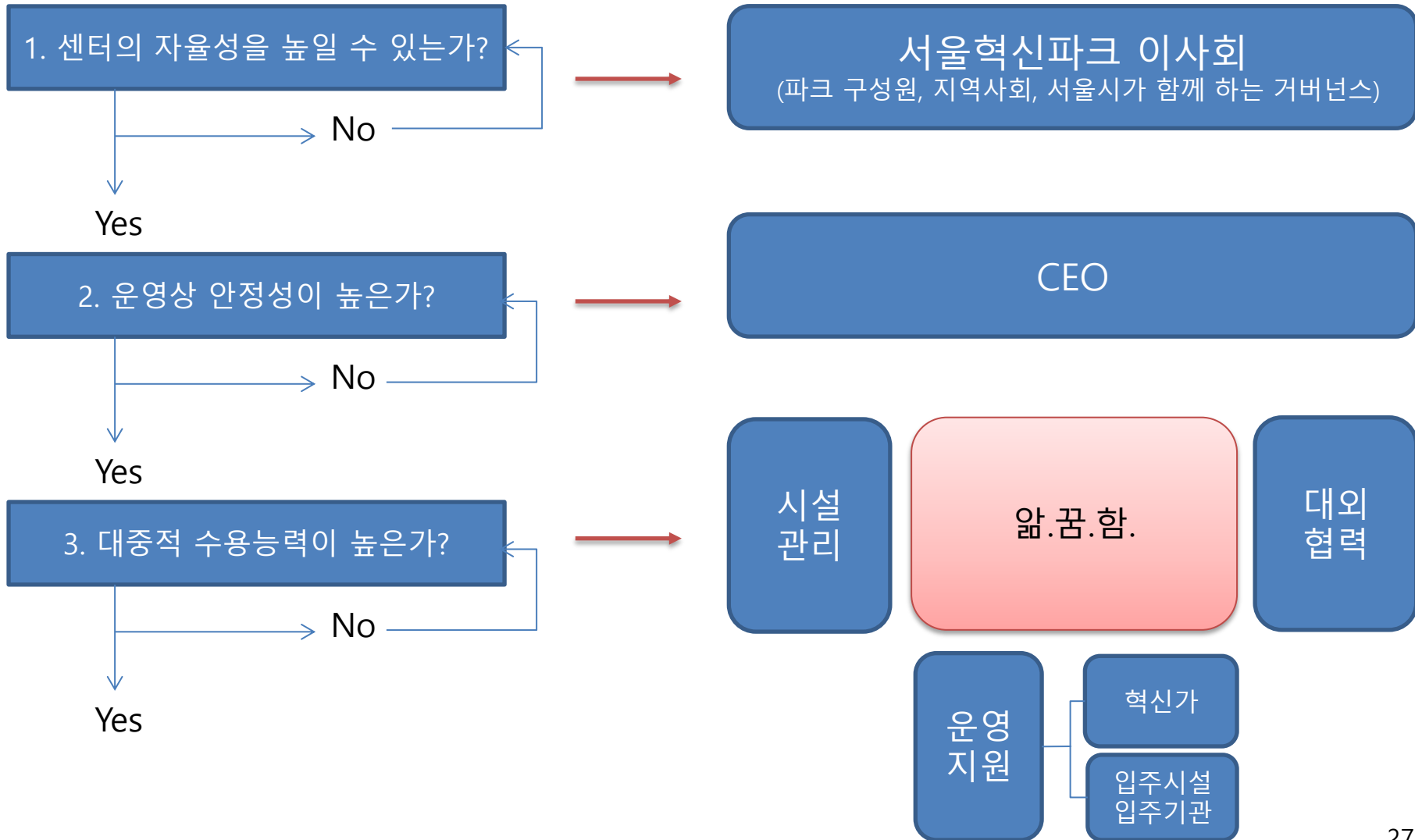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_ 서울혁신파크를 수탁할 미래 조직

1. 시설관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맡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운영조직을 수탁할 조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현재 수탁가능한 대상으로 비영리, 대학, 입주자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음.
3.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센터직원, 입주자의 가장 큰 바램은 '자율성'임. 다음으로 혁신파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안정성'이 담보가능한가임. 세번째로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성'이 높아야 함. 각각의 조직을 3가지 질문에 넣고 답을 해 보고, No일지라도 개선가능성이 있으면 보완과제를 넣고 다시 시도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수탁조직을 선택.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_ 서울혁신파크를 수탁할 미래 조직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 낼 공간 구성과 운영

열린공간
↑
↓
해방공간

숲과 정원과 텃밭
모두에게
열린공간



레지던스 시설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특별한 곳

↑
압,꿈,함 콘텐츠 개발 및 공급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입주자
얼라이언스

청년
허브

50+
재단



갈림길에 도달하여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곳에 꽃과 나무를 심자
바로 그 곳이 사회혁신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